○ KCB 갤러리 나누고 싶은 모습들 ○

도미니카 단기선교

전국총회(NCKPC) 임원회

2013년도 전교인 수양회

신임 제직 안수식

창립 60주년 기념 탁구대회

한국 문화 축제

남선교회주최 기금모금 Golf 대회

마리아 여선교회 바자

보스톤 한인 교회 소식지 6월호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Vol 44 No.3 2013. 10. 27
편집: 홍보위원회 편집팀
(김한나, 김희수,윤경문 목사, 박신영)

사랑의 마음 희망의 말

한울타리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
담임목사: 이 영 길

10월호 목차

한국문화축제를 돌아보며
KCB 60
교육위원회
역사 편찬 위원회
콜롬비아 단기선교여행
제직 안수 임직 인사말
권사회
남선교회
에스터 여선교회
전교인 여름 수양회
구루터기 2부
Ransom 중고등부
탁구대회를 마치고
Sunflower 유년초등부
옛교우 동정 소식
고 심기선 권사 조사
60주년 행사위원회
제직 안수 및 임직예배
새교우 환영회
KCB 갤러리

한국문화축제를 돌아보며…

김동규 집사

아마 60년전의 우리 교회는 바람에 날려온 작은 풀씨처럼 작고 보잘것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의 작은 반도에서 온 몇몇의 유학생들이 모여서 시작한 그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로 60, 환갑의 아름다운 나이를 맞이하였습니다.

보스톤 한구석에 간신히 자리한 풀씨같았던 공동체가, 이제는 이웃을 보듬고, 아름드리 그늘도 만들어주는 듬직한 신앙공동체로 자라나, 브룩크라인 주민들을 다시한번 주님의 큰 잔치에 불러모았습니다.

'포옹' 이란 주제로, 바람에 실려온 작은 꽃잎처럼 아름답고 여운이 감도는 우리네 정서에 브룩크라인 주민을 보듬고, 한류의 넘치는 흥겨운 가락과 장단에 동서양의 음악을 섞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담긴 '포옹' 의 깊은 의미와 함께 지구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크리스천의 소명의식을 되새기며 집사회는 새해 벽두부터 한국문화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무대를 설계하고, 이웃에 알리고, 교회내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도움을 청하고… 계속되는 회의와 준비가운데서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궁금해 하면서 문화제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을 거듭하면서 우리들이 깨달았던 것은 이웃을 포옹하기전에 하나님안에서 서로를 포옹하는 법을 배웠으며, 서로를 섬기는 기쁨을 알아갔습니다. (pg 2에 계속)

<담임 목사 메세지>

KCB 60

이영길 담임 목사

다음 달이면 저희 교회가 회갑(?)을 맞이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회갑 잔치를 치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회갑은 노인과 젊은이의 마지막 경계선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회갑을 치루던 안 치루던 우리들의 몸은 상관없이 나이가 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피를 생성해 내는 기관입니다. 골수(Bone marrow)에서 피를 생성해 냅니다. 적혈구는 120일간만 살기에 계속 골수는 적혈구등 피를 생산해 냅니다. 그러나 점차 피를 생성해 내는 정도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집니다. 곧 우리가 회갑을 치루던 안 치루던 이 능력은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저희 교회의 회갑을 성대히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 교회의 골수(Bone marrow)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생성되는 새로운 피가 늘 저희 교회를 흘러 왔습니다. 60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흐를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주님의 골수에서 나오는 새로운 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더욱 강하게 우리 교회 안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60주년 행사를 기쁨과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치루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행사를 통하여 앞으로도 계속 피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pg 1에서 계속)

문화제를 위해 선뜻 헌금해주신 집사님들, 빡빡한 업무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어 무대를 설치를 도와주신 집사님들, 몇시간이고 서서 음향과 조명을 일일히 챙겨주신 집사님들, 100여명의 행사팀 저녁과 400명분의 한국음식 맛보기 식단을 준비해주신 에스더, 마리아 여선교회 집사님들, 서툰 일손이라도 아끼지 않았던 여러 교우들과 청년 1,2부,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격려와 기도로 늘 힘을 더해주신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보내주신 일손들을 헤아리면서, 결국 이번 문화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품에 품으시고 함께 걸어와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운 거문고와 가야금, 신나는 풍물과 멋진 동서양의 합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브룩클라인 주민들 사이에서 덩실덩실 춤추시는 우리 하나님, '아리랑'을 흥얼거리며 상기된 얼굴로 본당을 나서는 주민들과 어깨동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저녁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이민온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독일을 용서 못하는 나라가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 한국사람들은 너희를 괴롭혔던 일본의 문화까지 포옹하는 친절함이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아리랑'을 부르며 이웃을 감싸안는 아름다운 나라가 한국이구나. 참으로 멋진 저녁이었다"

민들레 풀씨처럼 보잘것 없었던 우리 교회를 브룩크라인에 세우시고, 믿음 뿌리 깊게 내리고 넉넉한 그늘을 만들어가는 장성한 나무로 키워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문화제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새교우 환영반

김현주 집사

저희 보스톤 한인교회에 오신 새교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교우 환영반에서는 새교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영길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 3번의 교육 시간을 매달 갖고 있습니다.

9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는 장승우 교우, 서창현/문영숙가정, 조장환/김소림 가정, 김민구/윤현선 가정, 송경수/사공수인 가정, 이원혁/전주영 가정입니다.

장승우 교우는 현재 하버드 의대에서 포스트닥터 과정에있습니다 . 교회는 어릴적 동네 아주머니의 전도에 의해 다니기 시작 한 후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서창현/문영숙 가정은 올 4월에 보스톤에 오셨고 슬하에 10학년 아들 (상원) 7학년 딸 (혜인)을 두고 있습니다. 서창현 교우는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아내의 운전을 해주던 중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보스톤으로 오기 전 다니던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영숙교우는 대학때 제일 친한 친구의 전도에 의해 신앙생활을 시작였고 아이를 낳은 후 말씀이 더욱 생명이 되어 생활에 와닿으며 엄마로써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은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더욱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며 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고계십니다.

조장환/김소림 가정은 슬하에 아직 한살이 안된 아들 (우진)을 두고 있습니다. 조장환교우는 미국에 온 후 대학생활 중 친구들과 교회를 다니기 시작 하였습니다. 결혼 후 보스톤에 다시 온 후 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김소림 교우는 중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다니게 되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주님께 좀 더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이번에 보스톤 한인교회에 남편과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김민구/윤현선 교우는 슬하에 8살 아들 (원서)과 5살 딸 (원영)을 두고있습니다. 김민구교우는 한국에서 새문안교회를 다니며 교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일본 유학중에도 신앙생활을 계속하였고, 한국에 돌아간 후에는 광주에 있는 양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1년동안 Visiting Scholar로 오며 보스톤 한인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윤현선교우는 결혼전에는 베델교회에서 신앙생활을하였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같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송경수/사공수인은 올해 1월에 결혼을 한 신혼부부입니다. 송경수교우는 군대에 있을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현재 Northeastern University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사공수인교우는 주일학교때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반주자로서 봉사하다가 대학도 신학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이원혁/전주영 교우는 본교회 청년부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이원혁교우는 본교회를 2002년부터 다니기 시작하였고 이번에 부부로서 아내와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전주영 교우는 입시미술 전공하였고 결혼후 이곳 보스톤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주간의 새교우 환영반 교육을 마친 후에는 새교우 환영만찬을 이정규 장로님 /김영미 집사님댁에서 베풀어 주셨고, 맛있는 음식과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서로 친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영반 교육을 통해 교회를 알고 서로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 교회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새교우 환영반에 관한 문의는 교인위원회 위원장 이정규 장로님과 윤미자집사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창립 60주년 행사 위원회

위원장 김영범 장로
부위원장 정하군 집사

올해 저희 교회의 창립 6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가지 축하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5월에 가졌던 60주년 기념 부흥회를 시작으로, 지난 10월 12일 성황리에 가졌던 한국 문화 축제에 이어 11월에 뜻깊은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 행사들을 위해 많은 교우님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섬겨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은 행사계획을 나눕니다. 앞으로 있을 기념 행사에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참여를 바랍니다.

이민 신학 심포지움: 11 월 16 일 (오후 4 시)
주제: 3세대가 함께하는 교회
강사 및 강의:
- 장성희 목사(Union Presbyterian Seminary): Living Together with Differences: An Intercultural Approach to Intergenera-tional Education.
- Kevin Park 목사(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 Generation to Generation
- 허천회 목사(토론토 말씀의교회):Sharing my ministerial experience of 10 years as a Senior pastor in making three generations learn and grow together in a local church
*동시 통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60 주년 기념음악회: 11 월 23 일(오후 7 시 30 분)
지휘: 변화경 장로, 박진욱집사
솔로: 조유미(소프라노)
문태국(첼로), 손민수(피아노)
보스톤 한인교회 1, 2부 연합 찬양대
Program:
- Serenade for string Orchestra, op.20 Edward Elgar
- Kol Nidrei, op.47 Max Bruch
- Cello: Taeguk Mun
- Exsultate, Jubilate, K.165/158a W.A. Mozart
- Soprano:Youmi Cho
- Gaelic Blessing John Rutter

Intermission

- Choral Fantasy in c minor, op80 L.V. Beethoven
Adagio
Piano : Minsoo Sohn
- 주의 성소
- "The Heavens are telling" from The Creation J. Haydn
- "Hallelujah" from Christ on the Mount of Olives L.V. Beethoven

창립 60주년 기념예배 및 만찬:11 월 24 일(오후 5 시)
- 설교 Rev. Roger Dermody, (Deputy Director Presbyterian Mission Agency, 총회)
- 축사: 조문길 목사 (동부한미노회 총무)
김덕기목사(NE교회협의회 회장)
Thatcher Freeborn 장로(보스톤 노회장)

쉐마의 밤

3세대가 함께하는 찬양과 기도의 밤인 쉐마의 밤이 지난 9월 28일(토), ECC Chapel에서 있었습니다.

주님께 마음껏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쉐마 찬양단이 인도해 주셔서 은혜로 예배를 열었습니다. 이어서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시간' 이 있었는데, 이날 참석한 부부청년부 가정의 어린이들과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작은 촛불을 이영길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전해 받아 들고 축복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순으로는 청년 2부들의 찬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을 드렸고, 이어, 이창호 집사님의 3세대 가족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세상의 빛' 이란 제목의 이목사님의 말씀이 있었고, 늘 쉐마의 밤때 드리는 가족을 위한 기도, 환자분들,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3세대가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를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쉐마의 밤에 많은 참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1부 교육위원회

김세철 장로

유년.초등 주일학교(Sun-flower Group) 와 중고등부(Youth Group) 전도사님들을 새로 모시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교우님들께 간략하게 소개드립니다.

8월부터 유년.초등부를 맡게되신 김수영 전도사님은 연세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군복무후 도미, Yale 대학원(목회학, M.Div.)을 거쳐 금년 6월 Princeton 신학대(설교학, Th.M)를 졸업한후 Boston에 Brigham & Women's Hospital 에 Chaplain 으로 full time 하시며 주일엔 우리 교회 유년.초등부 전도사님직을 맡고계십니다. 천민정 사모님은 한예종 졸업후 Yale 대학원을 거쳐 현재 BU 에서 Viola 박사 코스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중고등부를 지난달 9월 부터 맡고 계신 Daniel Kim (김수재)전도사님은 Georgia 주 태생인 한인 2세입니다. 2006년 US Army 복무를 마친후 조지아

에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청소년부 전도사직을 담당하시고 2011년에 Georgia State University 에서 종교학 전공후 West-minster 신학대에서 목회학 과정에 계시다가, 이곳 Gordon Conwell College 로 전학하심과 동시에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유신애(Faith) 사모님은 Pennsylvania 태생 한인 2세이시고 같은 Westminster 신학대에서 종교학 석사학을 수료하시고 금년 봄에 김전도사님과 결혼하신 신혼부부입니다.

두 전도사님들이 한결같이 정열적이고 활기찬 에너지로 예수님을 사모함과 동시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친형제같이 아끼고 사랑으로 감싸주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실 이 두분들을 늘 격려해주시고 기도 제목에 꼭 포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부 교육위원회

권복태 장로

[소그룹 성경공부반 안내]

매주 1부와 1부 예배시간 사이에 실시되고 있는 "소그룹 성경공부" 는 10명 미만의 그룹원이 모여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현재 10시 30분 부터 2개 반이, 10시 50분부터 5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 이요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강의식 성경공부반도 있으니 각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말씀과 함께" 교재의 가을편을 9월 부터 11월 까지 나누고 있는데, 내용은 성경 말씀 "열왕기 상, 하" 편으로 현대 사회에 팽배한 배금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말씀에 비춰보며 어떻게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믿음의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역사편찬 위원회 보고

위원장 김정선 장로

창립60주년기념 사진전 Part II (1995-2013)

본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11월 초에 창립 60주년 기념 사진전 Part II를 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진전 Part I은 1953년 창립 당시부터 1994년까지를 14개의 포스터에 정리해서 지난해 말부터 전시 되고 있습니다. 이번 Part II 에서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이영길 목사님 재임시의 교회 모습을 모두 25장의 포스터에 주제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드래프트는 완성이 되어서 각 관계 기관과 당회의 검토를 끝내고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25장의 포스터의 주제는: 보스톤한인교회의 비전, 담임목사, 사역자 및 당회, 권사회, 상록회, 제직, 집사회, 남선교회, 예배, 교인과 찬양, 예배를 돕는 자들, 교회건물 및 ECC, 유년주일학교, 보스톤한국학교, Youth Group, 청년1부, 청년2부, 부부청년부, 국내선교, 해외선교, 성경공부 그룹, 지역 및 교회 봉사, 여선교회, 구역모임, 여름수양회, 한국문화축제, 교회 주요행사, 은사공동체 및 교회 출판물 역사 등 입니다. 여기에 전시된 사진들은 현재 편집 작업중인 보스톤한인교회 60년사 책자에 들어가는 "사진으로 보는 60년"에 편집이 되어 실릴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60년 필그림 여정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2014년 창립 61주년에 맞추어 출판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콜롬비아 단기선교 여행

최 샘 (중고등부)

그 한 여름밤의 꿈

아직도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콜롬비아에서 보낸 지난 10일, 그리고 그 곳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도 전부 다 꿈인것 처럼 생생하지만, 이제 어느덧 그 10일이 모두 지나고 보스톤으로 돌아온 날도 벌써 한달이 되었습니다. 돌아와 학업에 집중하고 매우 바쁜 일상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되돌아 보면, 저희 선교팀이 콜롬비아에서 보낸 10일은 제가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만큼 뜻깊었으며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다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것 같은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선듯 대답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떠나기 전 공항에서의 이번 선교여행에 대한 마음가짐을 돌아본다면, 저의 마음은 마치 학교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의 마음이 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의 그 마음가짐과는 매우달랐지요. 그렇게 콜롬비아에 도착했을 때에도 웃으시며 잘 해주시는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보며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마치 놀러온 것 같다는 경솔한

다고 좋아 하셨지요. 우리는 이것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크게 축하를 해야한다"고 하여 모두 함께 한국 식당에 가서 원용이의 Harvard Law School 입학을 celebrate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더 있다가 원용이가 교회에서 아주 좋은 색시감을 만나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좋아 하면서 무슨 옷을 입고 결혼식에 갈까 고민 하던 중, Brookline에서 아름다운 Boutique을 하고있는 동서의 가게에 가서 예쁜 옷을 구하였다고 하면서 옷을 입고 Fashion Show를 했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는 새 사돈 마님이 너무나 Talent가 많으시고 무엇이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고 칭찬과 자랑을 늘 제게 하셨지요. 우리도 그 덕분에 맛있는 무말랭이 반찬, 생전 알지도 못하던 Chayote를 가지고 간장과 설탕을 섞어만든 음식, 그리고 뜨게질로 만들어 주신 컵 받침, 접시닦게 행주 등… 같은 동내에 살았던 특전으로 우리도 혜택을 많이 받았지요, 심 권사님 덕분에.

또 우리가 여행을 갈때에는 비행장으로 가는 bus 정거장 까지 ride도 해 주셨고, 또 어느날 우리가 먼 여행에서 공항에 밤 늦게 도착하여 우리 동네가는 공항 뻐스가 끊겼을때 공항까지 나오셔서 우리를 pick up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배고프다고 따뜻한 밥과 국도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그날 저녁 그 고마운 심권사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오래동안 살았던 정든Wellesley의 집을 팔고 아예 심권사님이 사시는 옆 동네로 이사를 했지요. (중략) 그리고 저는 가끔 심심하면 농담으로, "고레스 엄마!" (Cyrus가 한글 성경에는 "고레스"로 번역이 되어 있지요), "고레스와 다윗이 어렸을때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역시 다윗이 이겼겠지요? " 하며 우리는 또 웃어 댔지요.

그러다가 그 아름다운 호숫가 집에서 권사님 혼자 살게 되었을때, 저는 가끔 우리 이웃 사촌이 얼마나 외로와 할까 하고 걱정이 많이 되었지요. 그래도 용감하게, 그리고 아주 씩씩하게, 주님을 많이 많이 의지하면서, 날마다 저녁에는 집 근처를 산보하며, Lesley College에서 accountant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의 산악 동우회에도 가입하여 열심히 등산도하며 건강관리에 힘쓰셨읍니다. 그리고 매일QT를 하며 신앙인으로도 본 받을 삶을 살으셨지요.

그러던 중 작년 6월10일 주일 예배 후에 우리둘이 함께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저는 갑자기 심 권사님의 눈에 황달증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요일에 바로 의사의 검진을 받았고 화요일 저녁 Abdominal CT Scan결과가 나왔다고 전화로 연락을 받았을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요? 왜 하필이면 죄없는 우리 심 권사님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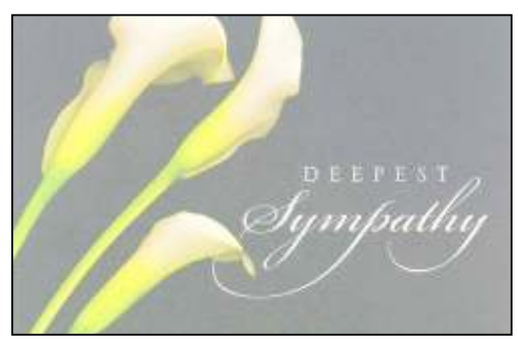
그러나 심권사님은 웃으시며 우리를 도리어 위로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 언니" 사돈마님을 준비해 놓으셨다구요. 지난 일년이 넘게 "천사언니"와 모든 가족들이 너무나 끔찍히 잘 돌보아 주셔서 편히 잘 계신다는 소식을 받을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권사님과 "천사언니" 사돈 마님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 하였답니다. 지난 7월 말, 우리가 Dominican Republic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가기전 전화했을때, 이제는 수술후 경과가 좋아져서 한고비를 넘긴 것 같다고 하셔서 마음놓고 선교 여행을 다녀 왔지요. 그런데 심권사님께는 아직 선교 갔다온 얘기도 못했는데 벌써 가시다니요…

심 권사님, 이제 모든 아픔과 고통, 근심 걱정이 다 끝났네요.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천군천사들과,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찬양하며 기쁘게 지내시겠지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모두 곧 따라 갑니다. 내 자리 맡아 놓으세요.

(중략)

주님! 이 유가족들의 앞길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고인의 믿음을 이어 받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심기선 권사님, 원용이 엄마, David엄마, 잘 가세요. 우리 모두 거기서 다시 만나요…



필승!

장세훈 교우

필승! 공군 상병 장세훈입니다

어느덧 미국을 떠나온지도 1년 이상이나 지나갔네요..

군생활을 하다보면 미국에서 생활했던 것들과 미국 교회 생활이 많이 생각 나더라구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보직은 항공기 기체 정비병이라해서 제가 있는 부대에 항공기를 정비하는 일을하고 있는데요. 이게 겨울에는 힘들거라곤 생각못하고 아무 생각없이 일하다가 이번 여름을 통해 많은 깨닳음을 알았습니다 . 쉴땐 쉬었어야 한다는것을요.
지금 미국의 여름 날씨가 얼마나 더웠는지 알수 없지만 이곳 한국의 더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웠답니다...

항공기 기체 정비병으로써 일하면서 얻는 것과 잃는 것들이 있는것 같아요. 일하면서 얻는것은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쉽고 협동심, 팀워크 같은게 많이 발달되더라구요. 다만 잃는것은 건강인거같아요

날씨가 더울땐 너무 덥고 추울땐 너무 추워서 몸 벨런스가 많이 깨지더라구요 ㅋㅋ.
하 .... 이제 군생활도 어느덧 드디어 1년을 다해가네요 ㅋㅋㅋ

아직 1년이 남았지만...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전역한 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미국 그립네요... 보스톤 한인교회 교인분들 다 잘지내시죠? ㅎㅎ 청년1부도 그리워지네요 ㅋㅋ

(고) 심기선 권사님 장례 예배 조사

김경애 권사

우리들의 곁을 떠나서 사랑하는 주님의 품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고) 심기선 권사님, 그의 이세상에서의 짧은 일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이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권사님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배를 드리며 이 조사를 올립니다.

원용 엄마! 권사님은 우리 집에 전화 할때마다 늘, “저 원용 엄만데요” 하고 전화를 걸으셨지요. 심 권사님과 저는 거의 20년 전 구역 성경 공부 모임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한상 차려 주셨지요.

Seattle에서 이사온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며, 조용한 모습에 잘 웃으시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후 얼마되지 않아 우리 보스톤 한인교회의 교인이 되셨다고 하고는 곧 바로 성가대에 join 하셔서 Soprano part에서 매주일 제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성가연습을 했었지요. 그동안 성가대원으로 너무나 충실히 봉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찬양연습을 하면서 막간을 이용해 이때다 하고는 머리 스타일로 부터 일주일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소근소근 또는 킥킥거리며 얘기하다가 때로는 찬양대 지휘자한테서 야단을 맞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심권사님을 위해 찬양 연습시간에 먼저와서 내 옆자리를 항상 맡아 놓곤 하였답니다.

몇년 전 우리가 Wellesley에 살고 있었을 때, 권사님이Newton에 있던 집을 팔고 우리 옆 동네 Natick의 호수가에 있는 집으로 이사와서 저는 너무나 좋아했지요. 같이 교회도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 Ride도 Share하면서…

어느 토요일 아침에는 뒷마당의 호수에서 큰 물고기를 잡아서 생선 매운탕을 맛있게 끓여 놓았으니 아침식사 하러 오라고 하여, 우리 부부는 너무 좋아서 10분 만에 찾아가 함께 오붓하게 정성스레 끓여 주신 싱싱한 생선 매운탕을 맛있게 먹었던 일도 생각 납니다. 또 언제는 토요일 아침 기도예배에 나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예배 후 아침식사로 얼큰한 국을 끓여 주시고는 큰 아들 원용이가 Harvard Law School에 입학했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첫날밤에 도착하고 다음 날에 일어난 저희는 알호나라는 곳으로 버스를 1시간 정도 타고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 아침 일찍이 이동하였습니다. 알호나는 매우 작은 곳이였으며, 이웃끼리의 정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알호나에 머무르며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처음 교회 크기를 걱정을 했던 저는 곧 제가 한 생각이 매우 틀렸다는 것을 금방 알수가 있었습니다.

전 태어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날씨가 정말로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두손을 하늘위로 들고 땀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모든 분들의 모습에 저는 제가 주일을 얼마나 허투로 보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서로가 하는 말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저희는 서로를 위해 손을 잡고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향한 곳 뻴랑케라는 곳으로 알호나에서 또 다시 1시간정도 떨어진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던, 제일 힘든 시간은 역시 정든 모든 사람들과 헤어지는 순간이였습니다. 그렇게 뻴랑케에 도착한 뒤 저희는 그곳에서 다시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뻴랑케는 아직도 부두(Boo Doo)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였던 지역이기에 선교를 하는데는 힘이 들었지만,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저희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사역지로 향한 곳은 보카치카라는 곳이였습니다. 저희가 머무르고 있던 도시 카르타헤냐에서 보트로 삼십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던 작은 섬이였던 보카치카는 저희가 가 본 어느곳 보다 비교적 기독교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독일에서 봉사 활동단체에 속한 두 분도 계셨습니다. 보카치카는 저희가 가본 곳 중에 제일 더운 곳이였지만 현지분들이 제일 반갑게 대해주신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제일 축복 받은 시간은 보카치카에서 보낸 3일이 손에 꼽을 정도로 축복받은 시간이였습니다.

콜럼비아에서 보낸 10일은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제가 무엇을 해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보람차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며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저희 교회에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도 매우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던 여행이 었습니다.

돌아온 지 어엿 한달이 넘었지만, 저는 콜럼비아에서 보냈던 10일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한달이 지났어도, 저는 아직도 제 친구들과 같은 미션팀 멤버들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9월 15일(주일)에는 제직 안수 임직하는 예배로 드렸습니다. 안수받고 임직된 제직들은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된 종으로 섬길 것을 다짐하며 선서를 하였습니다. 충성된 자로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친구 없이 외롭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힘이 되어 도와주고, 나아가 주를 섬기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신임 안수 장로: 엄재관 장로
신임 권사 임직: 김용희, 김종신, 김춘미, 조영신 권사
신임 안수 집사: 구용한, 김진기, 김은정, 박양신,
신보경, 이동화, 이재익, 이지훈, 임보라,
장성연, 한혜성

장로 안수 임직

엄재관 장로

먼저 죄많고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목사님과 당회원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을때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불교신자인 외삼촌집에 새해인사를 갔습니다. 새로 성경책을 사서 새해 선물로 외삼촌께 드리면서 교회에 다니시라고 권유 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제가 나올때 외삼촌께서 성경책을 되돌려 주시면서 너나 교회 잘다니고 신앙생활 잘해서 꼭 장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섰지만 그 외삼촌은 끝내 제가 전도하지 못하고 불교를 믿다가 돌아 가셨습니다.

올해 초 장로로 공천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몇일을 고민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알지 못 했지만 삶의 터전을 모두 버리고 떠날수 있던것은 순종과 용기였습니다. 용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한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저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모든것이 다 부족 합니다.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이 말씀에 용기를 내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보이는 것만 믿었고 그것을 쫓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부터 "너는 나를 믿는것이 아니기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고 부인하실까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며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삶의 현장인 세상 속에서도 선택받은 바른 신앙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보스톤한인교회 가족 여러분들께

강민형 집사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클리블랜드에 온지도 이제 한달이 넘게 지나갑니다. 저희들도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고, 나름 열심히 살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스톤 한인장로교회와 같은 교단인 '클리블랜드 한인중앙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보스톤 보다는 확실히 느리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유는 있지만, 좀 답답한 면도 있구요. 대신 아주 넓게 삽니다. 그건 확실히 좋은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보스톤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여기 생활에 좀 더 익숙해지겠지요.

일단 무엇보다, 이번에 임직 받으신, 엄재관 장로님, 김용희 권사님, 김춘미 권사님, 장성연 집사님, 박양신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저와 wife는 일년 전에 받고 제대로 봉사도 못하고 여기로 와서 많이 미안했는데,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 모두다 오래 오래 보스톤 한인 교회에서 봉사 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찬양대는 무조건 사수하시길.. :)

함께 했던 찬양대 분들이니 이곳 교회에서 주일에 들었던 찬양에 대해서 잠시 제 느낌을 얘기 해 보자면, 그 동안 보스톤한인교회 1부 성가대가 생각 나서 눈물 짓게 만드는 찬양이 세번 있었습니다.
'있으니' '축복하노라' 그리고 '기억하라'.

처음에 '있으니' 반주를 듣는데 1부 찬양대 생각이 나고, 눈물이 핑 돌면서 잘 듣고 있었는데, 첨에 비슷하더니 아.. 뭔가 다르다, 반주도 다르고 부르는 것도 좀 다르고, 내가 알 던 그 찬양이 맞나? 싶더니만, 결국 핑 돌던 눈물이 금방 말라 버렸습니다. ㅠㅠ "2% 가 부족하다!?" (교만한 맘이 아니라..그냥 그 자리에서 받았던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 해주세요 ~)

인터넷에 떠돌던 말 중에, '종이 한 장 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략 큰 차이가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나중에 그 담에 붙는 말이 따로 생겼지요. '그 종이가 너무 두껍군' 이라고요.

그동안 1 부 찬양대에서 찬양하면서 배운게 바로 그 부족한 2%를 어떻게 잘 메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에서 98%는 어쩌면 쉽게 가겠지만, 그 다음 2%는 정말 힘든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던히도 애썼던 것 같아요. 특히 지휘자님 :).

'축복하노라' 는 그 날 누가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최현구 집사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싱크로 100%. :) 역시나 눈물이 핑 돌았구요. 좋은 찬양 불러주신 최현구 집사님 감사~
'기억하라' 역시나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감동이었구요. '제가 보스톤에서 참 좋은 찬양들을 배우고 불렀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는 곳이 다르고, 찬양의 모습과 스타일이 달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보스톤에서 함께 삶과 찬양을 나누고 함께 했던 시간에 감사했습니다.

여러 모로 수고 하고 애쓰셨던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모든 찬양대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주안에서 기원합니다.

Sunflower 유년. 초등 주일학교

박선희 집사

여름이 차츰 무르 익어 갈 즈음인 지난 6월 24일 부터 27일 까지 4일동안 "Facing Fear, Trusting God" 라는 주제하에 여름 성경 학교가 열렸습니다. 4일 내내 80여명의 어린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힘차게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이었습니다. 함께한 선생님들 ,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자원 봉사자들, 또 맛있는 저녁을 준비 해 주신 PTA 회장님과 그외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6, 7, 8월 3개월 동안 부재 중이셨던 주일 학교 전도사님을 대신 하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신 Sam Kim 전도사님, 김세철 장로님, 한승희 장로님, 백승한 집사님, 하대준 집사님, 이혜원 집사님, 안은신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한혜성 집사님, 그리고 김성현 장로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7월 마지막 주일을 끝으로 그동안 5학년을 섬기어 주셨던 이강민 집사님이,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일에는 3학년을 섬기어 주셨던 강민형 집사님이 타주로 이주하시어 주일학교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Nursery 1 (3살) 을 맡아 주신 김민경 집사님도 더 이상 주일 학교를 섬길 수가 없게 되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정윤숙, 황미애, 문영숙, 정인혜 선생님을 새로 모시게 되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 보다도 많은 열정과 사랑으로 주일 학교와 어린이들을 위하여 수고 하여 주신 세분께 - 이강민 , 강민형, 김민경 집사님 -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일 학교의 새 담당 교역자로 부름을 받으신 김수영 전도사님께서 8월 마지막 주일부터 사역을 시작 하셨습니다. 주일마다 뵙는 전도사님의 환한 미소와 함께 듣는 주옥 같은 설교 말씀에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음을 감사 드립니다

9월 첫째 주일에는 9명의 5학년 어린이들이 그 동안 정들었던 주일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뒤이어 둘째 주일에는 진급 주일을 맞이 하여 모든 주일 학교 어린이들이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함께하는 설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Toddler – 김미미, 김미숙
Nursery 1 (3살) - 정윤숙
Nursery 2 (4살) - 권예림, 조민진
Kindergarten (5살) - 진정원, 강모나
1학년 - 황미애, 정인혜
2학년 - 김하얀
3학년 - 이재익
4학년 - 임보라
5학년 - 김지원 (Caroline Kim)
찬양팀 - 신보경, 김연희, 웅성은, 한승구, 엄순호

주일 학교를 위하여, 주일 학교에 출석 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을 위하여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천 장로가 되어 올초부터 당회에 참석했습니다. 당회에서 교회를위해 계획하고 기획 하는일들이 많고 어렵다는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당회원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것을 알았고 나도 이분들 뒤를 이어 누가 되지 않아야 겠다고 마음속 다짐도 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장로 임직하는 저를 축하 하시려고 연로 하신데도 한국에서 오신 어버지와 인디애나에서 오신 형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민생활과 삶의 현장에서 지쳐 고민하고 믿음이 흔들릴때 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조언해준 저의 아내와 두 아들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안수 집사 임직

한혜성 집사

영어구역과 중고등부(youth group)에서 섬기고 있는 한혜성 집사입니다.

제가 대학부 멤버로 우리교회에 첫 발을 디딘 2000년 이후 김상기 집사와의 결혼도 이영길 목사님 주례하에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 우리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첫 희년을 지냈고 그후로 보스톤 한인교회는 삼세대가 함께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ECC 건축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시간이 한시간 앞당겨지며 함께 시작된 성인 성경공부는 우리 교회안에 아름다운 말씀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여러 은사공동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듯이 저의 삶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3년 MBA를 마친후 직업도 4번 바꾸고 드디어 돈과 명예와 바꿀수 없는 제가 진정으로 즐기는 일을 찾았습니다 – 학생들을 가르치는일. 귀한 세 딸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은 세 아이의 엄마로 정신 없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와 정반대인 김상기집사 와도 지난 13년동안 같이 살면서 많이도 싸웠지만 그랬던 만큼 서로를 더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었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

결혼후 이사도 3번해서 지금은 저희가 Wayland에 정착을 했구요... 처음에는 mortgage때문에 직장을 바꿀때마다 경제적으로 힘든 고비도 몇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신실하신 주님은 저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고 푸른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의 건강과 아이들의 알러지 아토피를 통해 아플때마다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요... 세상적으로 봤을때 많은 실패 혹은 성공이 있었던 1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건 성공이든 그 모든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나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 가운데 이제 안수를 통해 받은 이 귀한 직분을 소중히 수행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권사 임직

김춘미 권사

부족하고 자격없는 저희를 권사로 부르심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자리에 섰습니다. 이 모든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직분을 주심은 교회에 덕을 끼치고,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책임을 맡겨주심을 깨닫고 오늘 저와 같이 권사로 취임하시는 김종희, 조영신, 김용희 권사님과 함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며 몸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신임 권사로서 아직은 미숙함 뿐이지만 늘 어머니와 같은 미소로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상록회에 계시는 권사님들 처럼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권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사회 소식

이숙재 권사

주님 사랑안에서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7월에는 해외 선교 위원회 안 태준 장로님께 선교헌금 $1,000.00을 전해 드렸습니다.
8월에는 권사회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투병 중 이시던 고 심기선 권사님께서 소천 받으셨다는 소식에 모두 망연자실하는 슬픔을 . . .

9월 22일 주일 날 2부 예배에 새로운 네 분의 권사님이 임직 되었습니다. 김종희 권사님, 조영신 권사님, 김용희 권사님 또 김춘미 권사님 네 분의 권사님 축하 드립니다.

2부 예배 후 친교실에서 교역자 및 교사님들과 가족을 대접하였습니다. 마침 고문이신 이성혜 사모님과 부회장이신 전신애 권사님 두분의 생신을 맞이하여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참석해 주신 교역자님들, 교사님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 가족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주신 영어구역 식구들, 방송팀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권사님들 남편분들께서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도에는 김정선 장로님이 권사회 고문 장로이시고 세 분의 고문, 김지수 사모님, 김계숙 권사님, 이성혜 사모님, 회계에 이계순 권사님, 2명의 부회장 조순래 권사님과 전신애 권사님, 그리고 회장에 이숙재 권사가 2013년 권사회 임원입니다.

벌써 10월이니 두 달이 지나면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 되겠지요.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보스톤 한인교회 권사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열심히 노력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60 주년 기념 탁구 대회를 마치고...

권복태 장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지난 9월 29일 주일 오후 "창립 60 주년 기념 탁구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일 출전한 선수들은 복식전에 22개팀 (44명), 남자 단식전에 22명, 그리고 여자 단식전에 8명으로 도합 연인원 74명이었고 토너먼트로 벌어진 치열한 접전에서:

남자 단식 우승 권복태 장로, 준우승 김진기 집사
여자 단식 우승 임현실 집사, 준우승 김영순 집사
복식 우승 안태준 장로/이유택 집사 팀,
준우승 이문영 집사/ 이원걸 집사 팀이 각각 영예를 차지 하였습니다.

매 경기 마다 열띤 접전과 묘기로 인해 탄성과 웃음이 터져 나왔고, 그로인해 모두가 한 마음, 한 가족이 되는 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즐겼습니다.

특별히 홍경자 장로님, 장현숙 권사님은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잊은듯 투혼을 발휘 선전하셨으나 아쉽게도 결승에 진출하지는 못하셨고, 김기범 형제의 경기 때는 가족들이 "Let's Go 김 기범"이라 쓴 피켓을 들고 열심히 응원하며 남다른 가족의 결집력을 과시 부러움을 샀으나, 결승 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분루를 삼켰습니다.

또한 당일에는 "보스톤 탁구 협회(탁사랑)" 소속의 선수들이 친선 방문하여 시범경기도 하면서 친교를 나누고 탁사랑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행사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준비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교회의 초창기 였던 1966년에도 비록 교회를 Rent 하여 예배를 보았지만 탁구시합으로 친교를 도모했다는 기록이 있고, 1973년 Nixon 당시 미국 대통령은 핑퐁외교로 죽의장막이라 불리던 공산주의 중국의 닫힌 문을 열개하여 지금은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게 하였습니다.

탁구를 계속하게 되면, 하체가 발달되며 순발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단위 시간의 에너지 소비가 많으므로 다이어트에 최상이고, 시간이 과도하게 들지 않아 생활에 균형이 잡히며, 실내 마루 운동이므로 과격하지도 않아 신체상에 무리가 오지 않아,나이가 훨씬 들어도 계속할 수 있으므로 3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운동이고, 기독교인의 3대 과제인 (전도, 봉사, 친교)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금번 이 행사에 힘입어, 탁구 동호회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7:00 부터 9:30 까지 친교실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Ransom 중고등부

황동준 집사

지난 3개월을 뒤돌아 보면 중고등부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6월엔 지난 7년간 중고등부를 위해 사역하시던 정한진 전도사님께서 부모님이 계신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정 전도사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성장 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학생들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고 그들의 얼굴에서 밝은 빛이 보입니다.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그 동안 사역하신 전도사님께 감사 드리며, 주님께서 그분이 가시는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7월과 8월 동안 설교해 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월에는 중고등부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사님도 안 계셨고 말씀을 전하실 초빙 전도사님도 없었습니다. 회사 일도 바쁘고, 집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정말 혼동이 많을 때였는데도 저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수양회를 많이 경험 했었기에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 자신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했다는 것을 다시 돌아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이라는 핵심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을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9월에는 새로운 전도사님 부부께서 오셨습니다. 보통 전도사님을 모시는 일은 쉽지 않지만 이렇게 빨리 모신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은 저희가 기대하지 않을 때 더 소중한 선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Daniel Kim 전도사님은 아틀란타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Army 에 있는 패트리엇 로켓트 발사관에 있다가 2006년에 제대하셨습니다. 죠지아 주립대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필라델피아 Westminister에서 석사학위를 2년 하시고 Gordon Conwell 에서 M.Div 을 마치려고 메사추세츠로 이주하셨습니다. Westminister에 있는 동안 배우자 Faith Yu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도 하셨습니다. 두 분의 사역은 중고등 부와 대학부 중심으로 주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두 분은 걷는 것, 책 읽기,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 즐기는 것들을 좋아하십니다. 전도사님께 문의 하시고 싶으신 학부모님들은 esunaregen@gmail 로 보내시면 됩니다.

10월 18일 금요일에는 첫 번째 찬양과 기도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래 기다렸고 그동안 필요했던 모임이었습니다. 찬양을 마음으로 부르고 뜨거운 기도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이벤트 형식으로 계획 중이지만 언젠간 매주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월 8일에는 저의 교회에서 ARISE찬양과 기도 집회가 있고 9일에는 매년마다 참가하는 김치 미식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오후 6시에는 커피하우스/ 탤런트 쇼가 어린이 채플에서 있으니 많은 부모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저의 학생들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 드리며.

남선교회

엄재관 장로

남선교회 주관으로 가을철 골프대회가 Lakeville Country Club 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산과 들이 가을의 정취에 무르익어 좋은 경치와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예상보다 적은 인원인 21명이 참석하여 4 개 조로 편성하여 조준호 장로님의 개회기도로 첫 조가 출발하였습니다, 경기는 이정일 집사님이 1등, 초청인으로 참석한 구본권씨가 2등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로 치뤄져 60주년 기념행사 위원장이신 김영범 장로님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습니다.

이번대회를 준비한 김준구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맛있는 점심식사와 공평한 시상 방식으로 많은 선수들에게 상품이 돌아가게 한 것이 일품이었습니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지만 행사때마다 교우님들께 후원 요청하는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번 대회에도 경기는 참여치 않으면서도 도와주신 김문소, 권복태, 안태준, 이정규 장로님과 이문영, 구용한, 김민준, 최정열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4대 남선교회의 계획된 행사 가모두 끝났습니다. 4대 부회장이셨던 이경환 집사님께서 직장관계로 사임하시고 이문영 집사님께서 부회장을 맡으셔서 내년에는 이문영 집사님께서 회장으로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장로, 집사님들께서 적극적인 후원과 격려를 부탁 드리고, 그리하여 교회의 사역에 SUPPORT 할 수있고 선교사역에도 관심을 갖는 능력있는 단체로 거듭나길 희망해 봅니다.

올 한해 동안 함께한 임원진과 고문단, 직전 회장님들께 깊은 감사드리고 남선교회원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에스터 여선교회

노윤경 집사

• 8월에 있었던 전교인 여름 수양회에서 교인들이 드실 간식으로 수박과 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설교를 하시느라 애쓰시는 강사 목사님께서 드실 물과 스낵도 준비하였습니다.

• 9월에는 제직 임직식을 맞이하여 전교인 점심으로 비빔밥을 준비하였습니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은 각 구역에서 정성껏 준비해주셨습니다. 약 400인분의 비빔밥을 준비하여 전교인이 즐겁게 점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 9월 말에는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실행위원회 가본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점심식사 한번과 저녁 식사한번을 에스더에서 맡아서 정성껏 준비하여 미국 전국에서 오신 여선교회 회원분들께 대접하였습니다.

• 10월에는 한국 문화 축제때 음식 준비를 하였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100여분의 스태프들을 위한 저녁 식사와 콘서트 전, 출연자들께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했습니다.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에스더, 그리고 마리아 여선교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전교인 여름 수양회를 돌아보며…

김동규 집사

"샘솟는 기쁨으로 섬기리라"

지난 8월16일에서 18일에 걸쳐, 143명의 보스톤한인교회 3세대가 한 장소(필그림 파인 수양관)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2박 3일의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샘솟는 기쁨으로 섬기리라" 는 주제를 놓고 이상현 목사님(콜럼비아 한인연합장로교회)께서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 하나 되새겨 주셨습니다. 6번의 주제강의 (예배)를 통해 함께 한 교인 한사람, 한사람은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을 다시 한번 만나는 가운데, 진정 기쁨으로 섬기는 자로 거듭나는 귀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수양회는 빡빡한 주제강연 일정 가운데서도 '주께로 가까이' 라는 신앙 워크샵 프로그램을 새롭게 준비하였는데, 김건철, 이요한 두분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건철 목사님께서는 '성경' 이란 큰 주제를 놓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는 여러 방법들을 실습해 보도록 인도하셨고,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기도'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에 닿는 열린 기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참석한 교우들은 신앙 워크샵을 통해 '성경' 과 '기도' 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동안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지던 신앙생활에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고 신앙 워크샵 프로그램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해마다 수양회를 찾는 이유가 가슴이 뻐근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벅찬 감격 때문이라는 한 교우님의 고백처럼, 올해도 전교인 찬양과 기도의 밤은 뜨거운 고백과 회개, 감사의 기도로 수양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신앙워크샵과 함께 '배움공동체' 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토요일 오후 1시간 30분을 배려해 4개의 공동체를 운영했습니다.

찬양과 발성법(조유미 집사), 테니스강습(정광근 집사), 골프 잘 치는 법 (구용한 집사), 사진 찍는 기술(한승희 장로)의 강의를 통해 교우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깊이 있는 조언과 실력 향상의 비법을 배워보는 보람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한 교우들은 배움의 시간이 짧다고 못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전문가에게 특별 레슨을 받은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수양회를 마치고, 짐을 다 챙긴후 조별로 모여 수양회를 돌아보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아름다운 자연과 은혜 충만한 말씀, 주님이 예비해두신 귀한 만남에 감사와 감사로 이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한공간에서 운영하였고, 중고등부는 자체 수양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명절에 큰 집에 모인 사촌들처럼, 서로 게임을 가르쳐주고, 놀아주고, 예배 드리는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봉사교사로 어린이 프로그램을 섬기셨던 김희진 사모님은 어른들의 수양회 만큼이나 어린이들에게도 귀한 추억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꽃샘추위가 한창인 봄부터 준비했던 이번 수양회를 위해 일손을 아끼지 않으셨던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수고하셨던 분, 함께 수양회에 자리하셨던 모든 분들께 '샘솟는 기쁨으로 섬기리라' 는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기도 드립니다. 수양회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과 함께 섬기시고,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루터기 청년 2부

엄순호 교우

저희 그루터기 청년 2부는 만 25세 이상의 지체들로 구성된 공동체로서 심도있는 성경공부와 말씀, 찬양 그리고 기도가 있는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매주 금요일 7시, 저녁식사 및 교제로서 금요 모임을 시작하며 8시부터 찬양과 함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현재 저희 청년 2부를 담당해 주고 계신 윤경문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말씀을 듣고 후에 기도회를 통하여 각자 기도제목이나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주 갖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모임을 마무리 합니다.

지난 10월 초에는 2013~14년 임기 동안 섬기게 될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였고 새로운 리더진도 구성되어 각각 청년 2부를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주일에는 각 리더 별로 하나의 조, 총 4개의 조로 나누어져 각각 지체들의 교제는 물론 심도있는 질문들을 통한 성경공부로 서로의 영적성장에 크게 도움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청년 2부에는 많은 달란트를 지닌 지체들이 많아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예로 지난 10월 12일 한국 문화제 때에는 저희 청년 2부에서 음악에 달란트가 있는 많은 지체들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는데 공헌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교회행사 사진촬영 및 봉사, 선플라워 어린이 예배 교사 섬김 등등 도움이나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많은 지체들이 열심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청년부(1부, 2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Homeless Shelter에 봉사 활동을 나갑니다. 몇년전부터 시작된 이 토요일 봉사 활동은 청년 2부를 중심으로 청년 1부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 이른 아침 함께 모여서 Boston Pine Street 에 위치한 Homeless Shelter에 가서 주로 음식 배분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백 여명이 넘는 Homeless들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주고, 식사가 다 끝난 후에는 식사 장소를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때론 거리에서 잠을 자는 homeless들을 위해서도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 새벽잠을 깨우며 뜻있는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 이 봉사 활동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여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으로 인해 저희들도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희들도 본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하고 섬기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희들 한사람 한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이땅에 이루어지는 날까지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매번 열심으로 섬겨주시는 윤목사님과 교육 2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주변에서 항상 도움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아주시는 이영길 담임목사님과 다른 모든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